

응시의 정치학—「노시카」의 라캉적 읽기*

오 길 영

1. 성적 관계는 없는가?

『율리시스』(*Ulysses*)의 「노시카」("Nausicaa") 에피소드는 길지 않은 장이지만 성적 정체성의 형성 문제, 성적 관계의 문제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압축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부장적 상징계가 규정하는 성적 정체성과 욕망의 문제를 성적 환상(fantasy)과 응시(gaze) 등의 열쇠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성적 관계는 없다”는 라캉(Jacques Lacan)의 주장이나 응시 이론, 그리고 남녀의 근본적 성적 차이를 강조했던 이리거레이(Luce Irigaray)의 사유를 분석의 주요틀로 사용한다.

영화의 장면배치(미장센)를 연상시키는 이 장의 도입부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적 역할의 분리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다. 배경이 되는 샌디마운트 해변(Sandymount Strand)에서 거티(Gerty)와 그녀의 친구들은 성적 대상 혹은 상품으로서 그녀들의 몸을 음미하고 즐기는 블룸(Bloom)의 관음증적 시선에 다양하게 반응한다. 또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규정된 이들의 성적 역할은 성모 마리아(Virgin Mary)에게 기도하며 금주피정으로 교회에 모인 남성들과 대비된다. 여성

* 이 논문은 2004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들은 해변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성들은 그들이 겪는 세파의 어려움에 대한 위안을 언제나 그들을 받아주는 성모에게서 얻는다. 이런 대비는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강요되는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시작 부분의 배경 묘사는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저 멀리 서쪽으로 해가 떨어지면서 어느덧 흘러가는 하루의 마지막 석양이 바다와 개펄 위에, 만의 물결을 예나 다름없이 지켜보고 있는 항상 정다운 호우드 언덕의 뿔내고 있는 곳 위에, 샌디마운트 해변을 따라 헤초가 무성한 바위 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만큼 강하게, 고요한 성당 위에, 햇빛이 사랑스럽게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교회로부터 순백의 밝은 빛을 통해 폭풍으로 동요된 마음에 영원한 등대가 되고 있는 성모를 향한 기도 소리가 이따금씩 정적을 뚫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 성당, 바다의 별. (*Ulysses* 284; 작품인용은 본문에 쪽수 병기).

성모 마리아는 세파에 찌든 남성들에게 위안을 준다. 자애롭게 사랑의 빛을 만물에 비취주는 성모의 이미지는 “폭풍으로 동요된” 남성을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여성의 정체성을 표나게 상징한다. 성모에게서 구현되는 천사 같은, 혹은 그와 같은 천사가 되어야 하는 여성에게 부여된 성적 역할은 ‘해변의 소녀들’에게서 반복된다. 그리고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성적 정체성은 「노시카」를 통해 계속 교차하면서 나타난다. 남성들이 성스러운 종교 모임에 참석할 때 거티와 그녀의 친구들은 미래의 씩씩한 남성들이 될 토미(Tommy)와 재키(Jacky)를 돌봐야 한다. 그리고 이들 사내아이들은 해군복을 입고 사소한 문제로 싸움을 한다. “씨시 캐프리와 에디 보드먼이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제국 군함 벨아일 호의 문자가 양쪽에 박힌, 잘 어울리는 모자를 쓴 해군복 차림의, 고수머리를 한 두 사내아이들, 토미 그리고 재키 캐프리와 함께 그곳에 왔었다”(284). “폭풍으로 동요”되기 쉬운 전쟁의 이미지는 사내아이의 “해군복”에 새겨진다. 그들을 소녀들이 보살핀다. 성모가 남성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듯이. 씨시(Cissy)의 묘사를 보자. “그의 해군모와 바지는 모래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나 씨시는 생활의 사소한 근심거리를 다독거리는 솜씨에 있어서 대가였기 때문에 이내 그의 꼬마양복은 한점의 모래도 찾아볼 수 없게끔 말쑥해졌다”(285). 씨시는 분쟁을 능란하게 조정한다. 그녀는 때로는 남자처럼 단호하게 때로는 천사 같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남자를 보살피는

여성의 이미지는 이 장의 핵심 인물인 거티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씨시와 거티는 “안락교회당”(Finnegans Wake 571.11)을 보살핀다. 가정은 남성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교회당이다. 안식의 제공자가 여성이다. 남성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여성을 대표하는 성모를 찬미하며 교회에 모인 남자들은 이렇게 묘사된다.

그러자 그때 합창 소리와 오르간에서 울리는 성가가 공중으로 퍼져나왔다. 그것은 교구전도사인 예수회의 존 휴즈 신부가 집전하는 목주 기도, 설교 및 성체배령으로 행해지는 남자들의 금주를 위한 피정이었다. 그들은 그곳에 사회적 계급의 구별 없이 함께 모여 있었으니 (그런데 그것은 보기에 참으로 교화하는 광경이었다) 그들은 바닷가의 저 소박한 성당 안에 모여, 지겨운 속세의 풍파를 겪은 뒤, 순결한 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로레토의 성모 마리아 호칭 기도를 암송하면서, 성모 마리아, 동정녀 중의 동정녀라는, 어느 때나 정다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고 그녀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다. (290)

남자아이들을 보살피는 소녀들과 성모에게 기도를 드리는 남성들의 모습은 강한 대조를 이룬다. 이런 대비를 통해 성적 역할의 비대칭성이 잘 나타난다. 교회에서는 성모가 남성에게 종교적 안식과 위안을 준다. 가정에서는 그런 성모의 이미지를 충실히 따르는 여성들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니, 수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지배하는 가부장적 상징계가 여성에게 부여한 성적 역할이다. 보살피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성모의 이미지가 제시하는 여성의 바람직한 성역할이다.

그곳에는 근심으로 치친 마음들이 있었고, 하루하루 그들의 빵을 위한 노역자들과 죄를 저지르고 방황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눈은 후회의 눈물로 젖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으니 왜냐하면 위대한 성 베르나르가 성모 마리아를 위한 그의 유명한 기도서에서, 가장 경건한 동정녀가 지닌 중재의 힘, 즉 그녀의 전능한 보호를 애원하는 사람들을 여태껏 성모가 뿌리친 일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번도 기록된 적이 없다고 말했음을, 휴즈 신부는 그들에게 일러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92)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안식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성모와 같이 순결해야 한다. 순결의 이데올로기는 교회가 여성에게 제시하는 여성의 대표적인 성모의 순

결성으로 강요된다.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여성의 원형적 이미지로서 성모의 이름이 아일랜드 여성의 성적 억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성적 정체성이나 욕망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것은 아니다. 해변가의 처녀들은 불륜을 의식한다. 그렇게 그녀들의 성적 정체성과 욕망은 성적 관계에서 주어진다. 씨시는 남성을 대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여성적 태도를 드러낸다. 에디와 거티는 좀더 주어진 여성적인 성적 정체성에 자신들을 맞춘다. 서로 다른 여성의 성적 정체성의 양상이 표현된다. 그러나 뒤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거티처럼 얼핏 수동적으로 보이는 여성도 남성의 시선으로 환원되지 않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갖고 있다. 물론 그 반대로 마찬가지이다. 그런 어긋남이 발생하는 지점이 응시의 지점이고 성적 관계의 비대칭성과 부재가 나타나는 곳이다. 거티가 불륜과 나누는 강렬한 시선의 교환과 어긋남은 이점을 잘 보여준다. 응시는 언제나 완전히 이해되거나 전유되지 않는 어긋남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거티에 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욕망을 드러내는 씨시는 말 안 듣는 남자아이의 “볼기짜”(290)를 때려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불륜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내세운다.

에디 보드먼은 맞은 편이 신사가 그녀가 말한 것을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씨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 들으라지! 하고 그녀는 거만스레 머리를 흔들며 코끝을 신랄하게 위로 치켜면서 말했다. 지금 당장 그에게도 똑같은 곳을 어떻게 좀 해줄까 보다. (290)

씨시의 반응에 대해 거티는 “숙녀답지 못한 이야기”(290)라고 규정한다. 씨시와는 달리 거티는 자신을 전형적인 천사로서의 여성, 보살피고 위안을 주는 성모 같은 여성의 이미지로 포장한다. “거티는 성품이 훌륭하고 착한 딸로서 집안에서는 마치 제2의 어머니격이었고 순금처럼 값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구원의 천사이기도 했다”(291). 이것은 분명 거티의 백일몽이고 환상이다. 그러나 그녀의 환상은 여성의 성적 정체성과 욕망의 형성에서 필수적이다.

2. 상징적 거세와 성적 정체성 형성

자신을 “여성다운 여성”으로 규정하는 거티의 성적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것은 과연 타고난 여성의 본성일까? 라캉의 상징적 거세(symbolic castration)개념은 자연스러운 본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 개념을 해체한다. 정체성은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규정할 때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적 관계없는 성적 정체성은 없다.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이 보여짐을 보는 곳, 타자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곳, 그 지점이 자아이상이라는 전망대가 설치되는 곳이다. 바로 이곳이 타자의 장소 속에서 나의 이름을 새기고 나의 의미를 얻는 지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또한 죽음의 시련, 향유(jouissance)의 상실이 병행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체는 오로지 타자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시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체는 타자의 장소 속에서 제 이름을 얻는 대신,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이것이 바로 상징적 거세이다)”(맹정현 485). 물론 이런 식의 정신분석학적 거세론이 주체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온당한 방식인지는 논란거리이다. 예컨대 들뢰즈(Gilles Deleuze)라면 상징적 거세나 결핍 혹은 부재가 아니라 욕망의 포획, 혹은 영토화라고 표현할 것이다. 거세개념을 비롯한 정신분석학의 여러 암묵적 전제들에 대한 들뢰즈의 비판은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강력히 개진된 바 있고 후기 주저인 『천개의 고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라캉의 ‘상징적 거세’ 개념은 들뢰즈의 ‘영토화’ 개념과 접점을 형성할 수 있다. 두 개념 모두 주체의 ‘탈주체화’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상징적 거세는 거티의 의식 묘사, 거기서 드러나는 상품화된 여성 이미지의 내면화, 낭만적 사랑을 대하는 거티의 환상에서 뚜렷하게 제기된다. 「노시카」의 핵심 이야기를 이루는 블룸과 거티의 노출증/관음증적 관계와 그들이 교환하는 응시의 관계는 그래서 중요하다. 여기서 “대문자 에스로 시작되는 사회라는 관습”(299)과 상징계로서 대타자와의 연관성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대타자의 부름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상징적 거세이고 상징적 동일화이다. 가부장적 상징계의 동일화 매커니즘에 완전히 종속된 이가 ‘남성적 구조’(masculine structure)를 지닌 존재이다. 그가 정신분석학적 의미의 ‘남성’이다. “상징계는 동시에 그것과 결합된 문화명령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대타자에 자발적으로 종속된 주체를 만들어낸다(상징적 동일화). 여기에서 대타자로의 종속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유는 상징계 속에도 상상계가 여전히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홍준기 1999, 226; Boons-Graf 298 참조).

고정되지 않은 기표(signifier)로서 거티의 성적 정체성과 욕망은 사회적 의미 작용의 흐름 안에 있다. 이런 사회적 의미작용의 흐름은 「노시카」에서는 자신의 몸과 욕망이 대타자로 표현되는 남성적 상징계의 시선에 포획되어 상품화된 여성과 그것을 구매하고 즐기는 남성의 관계로 나타난다. 남성과 여성의 비대칭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리거러이는 가부장적 상징계에서 여성은 언제나 남자로서 규정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이리거러이는 라캉의 상징계론을 비판한다. 그러나 라캉이 말하는 남성적 구조와 여성적 구조, 그리고 성관계는 없다는 지적에는, 남녀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강조하는 이리거러이의 사유와 공명하는 부분이 있다(Irigaray 1991, 173, 169; Irigaray 1996, 47). “사회적으로 말하면 여자의/여자를 위한 기표는 없다는 라캉의 단언이, 우리 문화에서 한 여자의 위치가 그녀가 파트너로 채택하는 그 남자에 의해 자동적으로 규정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곤란을 겪어야만 규정되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달리 말하면, 그녀를 규정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일은 지난한 일이며 장애를 동반하는 일이라는 것이다”(펑크 66). 거티는 그녀의 “기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녀는 스스로를 “그녀가 파트너로 채택하는 그 남자”, 즉 블룸의 시선 아래 굴복시키며 포로가 된다. 라캉의 성적 정체성 이론의 뛰어남은 여성이 “그녀를 규정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일이 지난한 일이며 장애를 동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날카롭게 통찰한 데 있다. “성적관계라는 것은 없다”는 도발적 주장은 이런 문제의식의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

거티와 다른 해변가의 소녀들이 블룸과 맺는 관계는 일종의 노출증(exhibitionism)과 관음증(voyeurism)의 관계이다. 거티와 그녀의 친구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블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드러내고 몸가짐을 저울질한다. 그 관계는 특히 이 이야기의 핵심부분을 이루는 블룸과 거티의 노출증-관음증 관계에서 절정에 이른다. 블룸은 상품으로서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는 거티에게 압도당한다: “맙소사! 모든 것이 한데 모인 듯한 기분이었어. 흥분. 그녀가 몸을 뒤로 젖혔을 때, 허끝이 쏘시는 듯한 느낌이었지. 정말 머리가 빙빙 돌아요”(305). 이 에피소드의 모티브를 이루는 것은 1898년에 만들어져 널리 알려진 대중노래인 “저 사랑스런 바닷가의 소녀들”(304)이다. 이 노래의 “사랑스러운”은

성적 교환의 매매관계를 표현한다. 여성은 남성에게 사랑스럽게 보여야 한다. 자신을 보기 좋은 상품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팔아야 하는 여성과 그것을 즐기고 구매하는 남성적 시선의 관계. 거티의 노출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난 뒤 불륜이 하는 생각은 그 점을 잘 드러낸다. “여자를 있는 그대로 두고 보면 이도저도 아니야. 무대 장치를 해야만 하는 거지. 입술 연지, 의상, 자세, 음악을, 이름도 역시”(303). 여성은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을 치장한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성의 욕망을 규정하는 “대문자 에스로 시작되는 사회라는 관습”의 남성적 응시와 여성적 성적 욕망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는 비대칭적 관계가 있다. 성적 욕망의 여성적 구조는 남성적 상징계로 완전히 포획되지 않는다. 이때 남성적 응시는 반드시 생물학적 남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심리적 구조이다. 라캉식으로 표현하면 상징적 거세에 완전히 굴복한 존재. 그것이 ‘남성’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라캉의 성별화(sexuation)이론에서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성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차라리 욕망의 남성적 구조와 여성적 구조(feminine structure)를 가리킨다. 라캉이 사용하는 ‘남성’과 ‘여성’ 개념을 생물학적 남성이나 여성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굳이 구분하자면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을 male, female로, 정신분석학적 규정에 따른 남성과 여성을 men/masculine과 women/feminine으로 나눌 수 있겠다(핑크 49). 어떤 점에서 불륜이 더 여성적이다. 그는 여성의 심리적 구조를 지녔다. 반면에 상징적 거세에 완전히 종속된 거티는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남성적 구조와 가깝다. 라캉의 성적 차이론에서 핵심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성적 주체가 대타자인 상징계에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여성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남성도 있고, 남성적 구조를 가진 여성도 존재한다. 남성들은 상징계 안에서 전적으로 소외되고 상징적 거세에 철저하게 종속된다. 남자들은 남근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열되지 않는다. 소외되긴 하지만, 상징적 질서에 완전히 종속되지는 않는다(핑크, 44-46 참조). 그러나 대타자로 상징되는 남성적 시선 앞에 주체들은 동질적이지 않다. 앞서 지적했듯이, 거티와 씨시가 남성적 시선을 대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씨시는 그 시선에 의식적인 거리를 두는 데 비해 거티는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신체적 불구를 의식하기에 더 강하게 다른 소녀들에게 내밀한 경쟁심을 느낀다. 그것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자의식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남성적 시선

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낼 수밖에 없는 여성의 성적 정체성과 욕망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씨시의 ‘숙녀답지’ 못한 행동에 대한 거티의 비판적 태도는 남성의 시선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의식의 결과이다:

— 재키! 토미!

그런 걸 들을라구! 얼마나 개구쟁이들인데! 그래서 씨시는 이제 이놈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서서 그들을 부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뒤쪽으로 펴려거리면서, 신사[블룸] 곁을 지나 경사진 길을 뛰어 내려갔는데 [중략] 만일 그녀가 키가 커 보이도록 신은 그녀의 굽높은 구부러진 프랑스제 하이힐을 신고 우연히 뭔가에 고의로 걸려 넘어지기도 했었다라면 참 가관이었으리라. 그 광경을 상상해보라! 그런 것을 목격했다면 신사분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노출이었을거야. (294-295)

이 대목에서 서술자와 거티의 시선이 교묘하게 겹치면서 씨시에 대한 거티의 거리감과 경쟁심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실제 씨시의 주관적 의도가 무엇이었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씨시의 행위를 남자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으로 해석하는 거티의 태도이다. 신체적 불구로 거티는 씨시와 같은 식으로 자신의 몸의 가치를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티는 자신의 몸을 블룸의 시선 앞에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거티는 블룸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다른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그녀에게 주입된 숙녀다움의 이데올로기에 비추어 씨시의 행위를 비난하고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숙녀다움의 이데올로기에 맞추는 전략이 그것이다. “거티 맥도웰은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는 그녀라면 정말 창피하여 입에도 담지 못할 그와 같은 숙녀답지 못한 이야기를 소리 높여 말하는 씨시 생각에 얼굴이 진홍색으로 화끈해지는 것이었다”(290). 거티가 보기에 씨시는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질 성 역할의 코드, “대문자로 시작되는 사회라는 관습”을 위반한 것이다.

씨시와는 달리 거티는 ‘숙녀다움’에 관한 사회적 약호를 충실히 따르면서 자신의 여성다움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쓴다. 우선 그녀의 외모는 매우 여성적으로 그려진다.

그녀의 당밀빛 창백한 얼굴은 상아처럼 하얀 색이어서 거의 정령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장미 봉우리 같은 입은 그리스적인 완전한 것으로서, 진짜 큐피드의 활과 같았다. 끝이 뾰족한 손가락을 한 그녀의 손은 예쁘게 정맥이 드러나 보

이는 설화적이고도 같았으며 레몬주스처럼 투명했기 때문에 고급 연고라도 바르고 있는 듯싶었다. [중략] 거티에게는 타고난 우아함, 일종의 여왕다운 냉담한 ‘오만’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섬세한 손과 높은 아치를 이룬 발등에서 분명히 증명되고 있었다. (286)

스스로를 “여성다운 여성”(293)으로 규정하는 거티는 자신이 꿈꾸는 낭만적 사랑에 어울리는 “남성다운 남성”(288)을 찾는다. 그는 그녀를 “포옹”해 줄 것이라고 보호해줄 것이다. 낭만적 사랑에 대한 거티의 환상은, 거티를 성적 대상으로 관음증적으로 즐기는 불륜의 냉철한 현실주의와 부딪친다. 거티와 불륜 사이에,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온전한 성적 관계는 없다. 여성다운 여성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거티에게 그녀가 즐겨 읽는 대중잡지가 전파하는 숙녀의 이미지는 사회적 관습, 혹은 그 사회적 관습의 언어를 지배하는 남성적 시선에 종속된다. 거티는 여성다움을 규정하는 가부장적 상징계의 시선을 철저히 내면화하며 남성의 욕망에 포획된다. 라캉의 대타자(the Other)를 연상시키는 “대문자 에스로 시작되는 사회적 관습”은 그녀의 성적 정체성과 욕망을 통제한다. 욕망의 검열 장치가 그녀 내부에서 작동한다. 여성다움을 숙녀다움으로 규정하는 목소리.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지배하는 상징계가 내리는 명령이다. “그녀는 에디가 할 말에 대꾸라도 해주려고 마음먹었으나 무언가가 그녀의 혀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충동은 그녀가 말을 토하도록 재촉했다. 기쁨은 입을 다물도록 명령했다”(286). 숙녀다움이라는 내면화된 사회적 코드, 혹은 상징계의 명령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조차 규제한다. 거티의 자기검열은 성담론을 지배하는 식민지 정치와 기독교 제도가 어떻게 한 개인의 의식과 육체에 작동하는가를 예증한다. 상투화된 여성성에 대한 거티의 집착은 여성성의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선전하는 여성 잡지를 그녀가 경전처럼 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적 언어가 지배하는 상징계는 아일랜드 현실에서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와 얽혀 있다.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현실이 개별 주체의 억압, 혹은 ‘상징적 거세’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해명하는 데 있어 정신분석학은 취약하다. 들뢰즈가 프로이트(Freud)와 라캉의 정신분석을 비판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정신분석을 가족의 이데올로기로 환원시킨 데 있다. “정신분석학의 불미스러운 점은 욕망을 길들이게끔 고안된 장치들에 대항하는 비판으로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주의 질서에 순응

하도록 옮겨 놓인 욕망에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주고 그것을 당연한 인간의 본성으로서 정당화했다는 것이다”(서동욱 133). 다시 말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정신분석의 발명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세계사적 산물로서의 오이디푸스를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체제유지에 이용하는 법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들리즈/가타리의 『안티 오이디푸스』와 『천개의 고원』의 부제가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인 이유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식민주의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의 주요 경로는 광고를 비롯한 대중매체이다. 거티가 광고가 대량으로 실리는 여성 잡지의 열렬한 구독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남성다운 남성”이라고 상상/오인하는 블룸이 광고외판원(cavasser)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블룸은 거티와 같은 여성들이 꿈꾸는 이미지를 파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룸은 그런 이미지를 생산하는 가부장적 상징계의 논리를 간파하는 인물, 여성의 구조를 지닌 독특한 인물, “여성다운 남성”이다.

거티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숙녀다움의 이데올로기는 당대 아일랜드의 식민지 경제상황과 관련된다. 세기전환기 아일랜드는 제대로 된 산업국가라기보다는 영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소비와 운송시장으로 주로 기능했다. 아일랜드는 독자적인 산업기반을 거의 갖고 있지 못했다. 더블린 또한 거대 산업도시와는 거리가 멀었다. 1904년에 더블린의 인구는 40만명 내외였다. 당시 7백만의 인구를 가졌던 런던과 비교해볼 때 자그마한 중소도시 정도의 크기였다(Lehan 249). 식민지 아일랜드에서 광고는 두 가지 점에서 식민주의의 유지에 기여했다. 자체 생산공장을 거의 갖지 못한 아일랜드에서 광고는 영국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가까운 시장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Pearce 9). 따라서 아일랜드의 소비경제는 영국의 착취구조를 강화하였다. 식민지 경제 상황에서 영국의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물이 대대적으로 대중잡지에 실렸다. 거티 같은 아일랜드 여성들은, 그들이 실제로 광고되는 물건들을 구입할 수 없다는 상황에 오히려 더욱 광고들이 선전하는 ‘숙녀다움’의 이미지에 매혹된다. 거티가 애독하는 잡지인 『레이디즈 픽토리얼』(*Lady's Pictorial*)은 이런 모방을 대표하는 잡지였다. 거티의 정체성 형성에는 그녀가 소비하고 즐기는 광고이미지가 깊숙이 개입한다. 그녀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거티의 욕망은 그녀가 읽는 광고의 제언에 따라 구성된다. 따라서 “우리는 주체들을 구성하는 물질적 심급 속에서 [거티가] 어떻게 종속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Foucault 97). 넘쳐나는 광고와 유

행패션의 이미지는 바로 “물질적 심급 속에서 주체의 종속”을 가능케 하는 한 기제이다. 자본주의의 논리와 정신분석학의 욕망 형성은 이렇게 연결된다.

거티는 사랑을 통한 현실 탈출을 꿈꾼다. 그러나 그녀의 꿈의 실체는 허황된 백일몽이다. 그러나 거티의 모습을 ‘현실 도피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손쉬우나 그것은 피상적인 평가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꿈꾸는 ‘현실 도피적’ 사랑의 현실적 정황을 밝히는 것이다. 세기전환기 식민지 소비자본주의 현실을 사는 거티와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환상은 때로 팍팍한 현실을 맞서는 방어수단이 되기도 했다. 거티가 내면화하는 숙녀 이데올로기가 빚어 낸 자연스러운 결과는 낭만적 사랑과 결혼의 이데올로기이다. 오직 사랑만이 중요하다고 그녀는 단정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최대의 안내자이니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어떤 일이 닥치든 그녀는 내키는 대로 하는, 속박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리라”(299). 문제는 그녀의 주관적 욕망과는 달리 그녀는 결코 “내키는대로 하는, 속박 없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의 성적 정체성과 욕망은 가부장적 상징계의 명령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 숙녀다움의 이데올로기는 그것의 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거티의 낭만적이고 미숙해 보이는 모습, 사랑의 환상에 사로잡힌 그녀를 묘사하는 서술자의 태도가 단지 비판적이거나 냉소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어떤 연민의 정서가 강하다. 세상물정을 모르는 듯한 거티의 미숙함에는 아직 세상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녀의 미숙함에 대한 배려가 있고, 설사 그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낭만적 백일몽일지라도 그렇게 된 현실적 정황이 있음을 서술자는 강조한다. 거티는 자신이 “도더 강변의 사창가 지역 근처를 군인들이나 야비한 사나이들과 함께 걸어 다니고 있는 타락한 여성들”(299)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티는 「써시」(Circe) 장에서 그녀가 비난했던 바로 그런 거리의 여성으로 다시 등장한다. 여기에는 현실과 백일몽의 거리뿐 아니라 여성의 분열된 성적 정체성 혹은 성적 욕망의 현실이 깔려 있다.

3. 사랑이라는 환상

거티는 “강하고 조용한 얼굴을 지닌 남성다운 남성”(288)과의 낭만적 사랑을 꿈꾼다. 그녀가 스스로 예민하게 의식하듯이 이제 11월이면 22세가 되는 거티는

여전히 상투화된 남성성에 대한 낭만화된 동경에 사로잡혀 있다. 그녀는 사랑을 “여성의 타고난 권리”(288)라고까지 이상화한다. 그녀가 꿈꾸는 낭만적 사랑과 행복한 결혼은 요정이야기(fairy tale)의 구도를 따른다. 그녀의 외모묘사 또한 요정 이야기의 공주를 연상케 한다. 거티는 요정이야기의 공주로서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 문제는 그녀의 현실이 요정이야기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회계급,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에 따라 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사회이다. 이런 현실에서 그녀는 궁핍하다. 정신적·물질적 궁핍함이 역설적으로 요정이야기 속의 공주라는 낭만적 꿈에 그녀가 강하게 집착하도록 만든다. 현실이 궁핍할수록 환상은 커진다.

만일 친절한 운명의 여신이 그녀에게 뜻을 품어 그녀 자신이 물려받은 권리로써 상류사회의 훌륭한 숙녀로 태어나게 했더라면 그리고 만일 그녀가 단지 훌륭한 교육의 혜택을 받기라도 했더라면 거티 맥도웰은 이 나라의 어떤 숙녀와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마를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귀족의 구혼자들이 그들의 경의를 그녀에게 표하기 위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발꿈치로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었련만. (286)

그러나 그녀는 그런 행운을 타고나지 못했다. 더욱이 그녀는 다리가 불구이다. 그녀가 처한 궁핍한 상황이 그녀의 환상과 백일몽에 대한 선부른 재단을 어렵게 한다. 서술자도 이점을 분명히 제시한다. “속웃으로 말하면 거티가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아리따운 17세 소녀의 오락가락하는 희망과 근심을 알고 있는 이라면 (거티에게 다시는 17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지만) 그녀를 나무랄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288). 이런 현실적 조건이 있기에 그녀는 자신의 백일몽적 사랑에 매달린다. “거티 맥도웰에게 사랑을 구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남자는 남자 중의 남자이어야만 한다”(288).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응시하는 불륜을 이렇게 상상한다. “그녀의 발아래 진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깔아 줄 그녀의 이상적인 애인은 어떤 매력있는 왕자도 아니고, 차라리 여태껏 그의 이상형을 찾지 못한, 튼튼하고 조용한, 아마 그의 머리카락에 얼마간 회색빛이 물들기 시작한, 씩씩하고 과묵한 얼굴을 지닌 남자다운 남자이리라”(288). 그러나 거티의 상상과는 달리 불륜은 “여성다운 남성”으로서 “씩씩하고 과묵한 얼굴을 지닌 남자다운 남성”이라는, 가부장적 상징계가 규정하는 남성성을 해체하는 인물이다.

이런 “남자다운 남성”을 상상하고, 자신을 “여성다운 여성”으로 규정하는 거티의 사랑에 대한 환상은 상징계가 부여하는 자기애의 논리에 갇혀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며 그녀를 보호하듯 팔에 안고, 그의 심오하고 정열적인 타고난 힘을 다해 그녀를 포옹하고 길고 긴 입맞춤으로써 그녀를 위안해 주는 남자이리라. 그것은 아마 천국 같으리라. 이런 남자를 그녀는 이 향기 그윽한 여름 저녁에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288-289). 이 대목은 낭만적 사랑의 어떤 진수를 드러낸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랑은 과연 가능할까? 거티의 “갈망”은 그녀의 성적 욕망의 생생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현실적 근거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기애로서 사랑의 본질을 통찰하지 못한다. 라캉은 사랑을 순전히 상상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한다. “사랑은 자기애적(autoerotic)이며, 근본적으로는 나르시시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아, 상상적 차원에서 현실화된 우리 자신의 자아이기 때문이다”(Evans 103). 거티가 바라보는 거울은 “상상적 차원에서 현실화된 우리 자신의 자아”이다. 사랑이 강렬한 환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사랑이 이미 상징적으로 거세된 상징계에서 “상상적 현상”으로 주체를 치유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근본적으로 “자기애”적 환상이기에 가능하지 않다. 자기애에 사로잡힌 두 주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따라서 “사랑은 성관계(sexual relationship)의 부재를 보충해주는 것으로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융합에 대한 일종의 착각적 환상(illusory fantasy)이다”(Evans 103).

사랑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가 부재하다는 사실, 즉 성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고안된 환상에 불과하다. 그럴 때 거티의 낭만적 사랑의 한계는 분명해진다. “그녀는 꿈길에 본 애인을 따라가리라. 그는 온통 그녀의 것, 그이야말로 자신을 위해 있는 온 세상에서 단 하나의 남자라고 일컫는 그녀의 마음의 명령을 따를 것이니. 왜냐하면 사랑은 최고의 안내자이니까. 그밖에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으랴.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녀는 원하든 대로, 속박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리라”(299). 문제는 “그녀의 마음의 명령”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대문자로 시작되는 사회라는 관습”의 목소리로 오염되어 있다. 그녀의 성적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거울은 이 목소리가 드러나는 장이다. 그녀는 거울을 보면서,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통해 들리는 목소리를 충실히 따른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어떻게 새침하게 울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티, 너는 참 예뻐, 하고 거울은 말해주었다”(288). 이렇게 말하는 거울은 무엇일까? 그것은 거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이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지배하는 상징계가 부여한 목소리이다. “그건 절대로 아니야. 그와 그녀는 비록 대문자 에스로 시작하는 사회라는 관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며 오빠와 누이처럼 관대하고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으리라”(299). 과연 “여성다운 여성”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거티의 환상 속에서 “남성다운 남성”으로 오인되는 흐름이 맺는 관계가 온전한 성적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그녀의 환상은 깨어진다. 남성은 그녀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아까 바위 위에 앉아 쳐다보고 있었던 저 낮은 신사가 빠꾸기였음을 눈치 챘던 것이다”(313). 남녀의 화합은 없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직접적인 화합의 관계는 없다. “라캉에 따르면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는, 그들이 남자이고 여자인 한에서 그 어떤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남자로서 여자에게, 여자로서 남자에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맺는 관계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끼어든다. 무언가가 그들의 상호작용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핑크 40-41).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어긋나는 것인지를 흐름과 거티가 교환하는 응시의 문제를 통해 좀더 살펴보자.

4. 성적관계의 부재와 응시의 문제

되풀이 말하지만, “성적 관계와 같은 것은 없다”(Lacan 1998, 12)는 라캉의 도발적인 발언은 상식적인 차원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남녀는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라캉은 남성적인 성의 위치와 여성적인 성의 위치의 차이를 강조한다. 성적 차이는 주체가 대타자인 상징계, 가부장적 상징계의 기표와 맺는 관계의 차이에서 나온다. “정신계에는 주체가 자신을 남성적 존재와 여성적 존재로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중략] 인간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대타자의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와 시나리오에 전적으로 맡겨진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남성과 여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대타자가 부여하는 상처기(scratch)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이점을 강조한 것이다”(Lacan 1977,

204). 문제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대타자와 성적 주체가 맺는 관계이다. 그때 정신분석적 차원에서 “남성은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상징질서, 혹은 펠러스 기능에 예측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부분적으로, 비전체적으로 펠러스 기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전체와 비전체의 개념의 차이가 양성에 대한 [상징질서]의 서로 다른 적용법의 차이를 설명해준다”(박찬부·조운숙 82). 여기서 전체와 비전체는 질적 차이를 가리키지 않는다. 여성의 심리적 구조에는 상징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무엇이 남아 있다. 라캉이 여성의 주이쌍스를 대타자의 주이쌍스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이유도 상징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어떤 차원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남자의 쾌락이 기표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데 반해 여자의 쾌락은 기표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며, 전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남자들은 라캉이 남근적 향유라고 칭한 것에 한정되는 반면, 여자들은 남근적 향유와 다른 종류의 향유 둘 다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다른 종류의 향유를 라캉은 타자적 향유(Other jouissance)라고 부른다”(핑크 47).

정신분석적 의미에서 남성은 완전히 상징적으로 거세된 존재이다. 그는 오직 가부장적 상징계가 부여하는 남근적 주이쌍스만을 누릴 뿐이다. 그러나 여성은 그런 완전한 거세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라캉에게 남근(펠러스)은 이런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된 성적 차이를 지칭한다. “라캉의 이론에서 팔루스는 남녀의 차이만을 상징할 뿐, 팔루스의 유무가 곧 특권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남녀를 구분해주는 이 팔루스라는 상징은 남녀라는 양성이 결코 이상적인 합일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홍준기 2002, 54). 대타자로서 상징계와 맺는 관계의 차이가 남근의 있고 없음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런 차이 때문에 남녀는 “결코 이상적인 합일에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 여성이 생각하는 남성은 언제나 오인이고 착각이다. “이런 기존 범주의 속성들과 더불어 남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성이 없다는 점에서 ‘성관계(sexual relation)는 없다.’ 이 말은 여성과 관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이 범주 안에 국한되지 않고 ‘성별을 넘어(beyond sex) 있기 때문에 ‘성(별적)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신명아 580). 상대방을 재현하려는 남성과 여성의 상호규정은 언제나 어긋난다.

남녀 관계의 어긋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응시이다. 라캉은 눈(eye)의 시선과 응시(gaze)를 구분한다. 보는 주체는 모든 것을 볼 수 없다. 자신이 볼 수 없고 보여지는 지점이 응시이다. “바라보는 눈은 주체의 것인 반면 시선은 대상 쪽

에 있어서 그 둘 사이에는 일치나 공존이 있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결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체가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은 항상 그 주체에게 시선을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 자리는 주체가 대상을 볼 수 없는 지점이다“(Evans 72). 이런 어긋나는 지점으로서의 응시의 존재는 성적 관계의 비대칭성, 혹은 성적 관계의 부재에 관한 라캉의 통찰과도 연결된다. 응시는 주체가 바라보는 지점인 눈과 다르다. “이런 분열은 사유에서 존재를 확인하는 자기동일적인 주체와 무의식적 주체 사이의 분열이 시각적 영역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양석원 69). 따라서 “응시는 상상계적 거울상과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 주체가 거울상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 실현되는 것을 발견하는 데 반해서, 응시는 주체로 하여금 재현의 영역에서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다고 여기게 하여 재현의 영역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양석원 73). 응시는 주체가 재현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을 지칭한다. 따라서 응시는 주체가 온전히 재현할 수 없는 대타자에 속한다. “사르트르는 응시를 바라보는 행위(the act of looking)와 융합시켰는데, 그에 반해 라캉은 이제 둘을 분리시킨다. 다시 말해 응시는 바라보는 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시각욕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라캉의 설명에 따르면 응시는 더 이상 주체쪽이 아니라 대타자의 응시가 된다”(Evans 72).

성적 관계에서 온전한 재현은 없다. “재현의 영역에서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성적 관계와 같은 것은 없다”는 주장의 다른 의미이다. 주체가 온전히 포착할 수 없는 지점인 응시는 재현의 영역, 상징계를 넘어선 실재에 속한다. 라캉의 응시에 관한 입론은 블룸과 거티의 시선 교환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거티의 경우

그녀는 따뜻한 피가 그녀의 뺨에 물결처럼 밀려오며 타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거티 맥도웰에게는 언제나 위험신호이기도 했다. 그때까지도 그녀와 신사는 단지 가장 담담한 시선만을 교환할 뿐이었으나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새 모자 테두리 밑으로 그를 대담하게 쳐다보았는데 거기에 저무는 황혼녘에 그녀의 응시를 받아들이는 그 신사의 얼굴은 창백하고 이상하게도 찡그린 얼굴로, 그녀가 여태 보아온 중 가장 슬픈 얼굴처럼 그녀에게 느껴졌다. (292)

거티는 자신이 상상하는 블룸의 모습을 재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블룸이 “이상하게도 찡그린 얼굴로, 그녀가 여태 보아온 중 가장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느낌일 뿐이다. 거티는 “과연 신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녀였으며, 그의 시선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293)라고 판단한다. 그녀는 자신의 시선을 통해 블룸을 온전하게 재현하려고 한다. 재현의 욕망에서 블룸은 그녀에게 그녀가 사랑의 환상 속에서 욕망하던 “그이”로 나타난다. “일종의 소녀 같은 여성의 마음 바로 그것이 그에게로, 그녀의 꿈의 남편에게로 나아갔던 것이니,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바로 그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기 때문이다”(293). 그러나 재현은 이미 어긋나 있다. 재현에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그렇게 블룸과 거티의 시선은 서로 어긋난다. 어긋남의 지점이 응시이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그녀에게 다시 고정되어 그녀의 모든 육체의 선을 들이마시면서, 문자 그대로 그녀의 체단에 참배하고 있었다. 한 사나이의 정열적인 응시 속에 가식 없는 연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남자의 얼굴에서 그것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한 연모의 정이야, 거트루드 맥도웰이여, 그리고 너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296). 어긋나는 응시의 지점을 고려해볼 때 “너를 위한 연모의 정”이라는 것은 거티의 환상일 뿐이다. 블룸이 “그녀의 모든 육체의 선을 들이”마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녀의 체단에 참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가식없는 연모의 마음” 때문도 아니다. 블룸은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욕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욕망이 표현되는 시선은 서로 어긋난다. “그는 깊은 한탄에 잠겨 있었으며, 그녀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유령처럼 나타나는 슬픔의 이야기가 그의 얼굴 위에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슬픈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세상과도 바꿀 수 있었으련만. 그는 너무나 열렬히, 너무나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다”(293). 거티는 자신을 “조용히, 쳐다보고 있”는 블룸의 시선을 그녀의 환상으로 재해석한다. 그러나 블룸의 시선에는 그녀가 재현할 수 없는 응시의 지점이 있다. 물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블룸은 자신을 바라보는 거티의 응시가 가리키는 지점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거티를 바라보는 블룸의 욕망은 관음증적 욕망이다. “캐펄가의 옛보기 활동사진: 성인남자만을 위한. 옛보는 톰. 윌리의 모자 그리고 소녀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했던가. 그들은 저런 소녀들을 스냅 사진으로 찍는 걸까”(301). 낭만적 사랑의 대상으로 블룸을 재현하려는 거티의 환상에는 포착되지 않는 블룸의 욕망이 존재한다.

그녀는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를 갈망했고, 만일 그가 자기를 깊이 사랑하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로 하여금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 아마 그는 한 사람의 참된 남성으로서, 그녀의 부드러운 육체를 그에게 힘껏 잡아당겨 너그럽게 그녀를 포옹하며, 그녀를, 그 자신의 아가씨를, 그녀 혼자만을 위하여, 사랑해 주리라. (294)

블룸을 바라보며 형성되는 거티의 환상에서 블룸은 “그녀 혼자만을 위하여, 사랑해 주”는 “한 사람의 참된 남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블룸의 의식에서 거티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

오 주여, 저 꼬마 절름발이같은 계집애가. 차갑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군. 뒷맛이 좋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배설해야만 하는 거다. 그네들은 개의치 않아. 아마 기분이 좋을거야. 집으로 가서 맛있는 빵과 우유를 먹으며 꼬마 아기들과 밤 기도를 읽 거야. 글썄, 그렇잖겠어? 여자를 있는 그대로 두고 보면 이도저도 아니야. 무대 장치를 해야만 하는 거지. 입술 연지, 의상, 자세, 음악을, 이름도 역시. (303)

블룸의 내적 독백에서 흥미로운 것은 성적 관계에서 작동하는 환상과 꾸밈의 필연성에 대한 통찰이다. “여자를 있는 그대로 두고 보면 이도저도 아니”라는 블룸의 생각에는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환원하는 관음증적 욕망이 작동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서로 “무대 장치”를 하고 다른 성을 대할 수밖에 없는 성적 관계의 어긋남과 비대칭성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 또한 존재한다. 성적 관계에서 다른 성을 “있는 그대로” 알 수는 없다. 성적 관계는 그 점에서 언제나 어긋나는 환상의 관계이다. 이것이 “성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라캉의 통찰의 의미이리라. 「노시카」는 성적 관계의 불가능성에 대한 조이스의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충남대)

인용문헌

- 맹정현. 「라캉과 푸코·보드리야르」. 『라캉의 재인식』. 창작과 비평사, 2002. 464-504.
- 박찬부·조윤숙. 「대타자에 대한 주체의 위치-라캉의 성담론」. 『영어영문학』 51권 1호 (2005년 봄). 69-97.
- 서동욱. 『틀뢰즈의 철학』. 민음사, 2002.
- 신명아. 「라캉과 버틀러」. 『라캉의 재탄생』. 김상환, 홍준기 엮음. 창작과 비평사, 2002. 572-606.
- 양석원. 「응시의 저편: 자크 라캉 이론에서의 주체와 욕망」. 『안과밖』 15호 (2003년 하반기). 55-76.
- 홍준기. 『라캉과 현대철학』. 문학과지성사, 1999.
- 홍준기. 「자끄 라캉, 프로이트로의 복귀」. 김상환, 홍준기 엮음. 『라캉의 재탄생』. 창작과 비평사, 2002. 15-141.
- 브루스 핑크. 「성적 관계 같은 그런 것은 없다」. 『성관계는 없다』. 도서출판 b, 2005. 25-87.
- Boons-Grafe, Marie-Claire. "Other/other." *Feminism and Psychoanalysis*. Ed. Elizabeth Wright. Oxford: Blackwell, 1992. 296-99.
- Deleuze, Gilles,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7.
-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 Psychoanalysis*. New York: Routledge, 1996.
- Foucault, Michel.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 Other Writings 1972-1977*. Ed. Colin Gordon. New York: Pantheon, 1980.
- Irigaray, Luce "Love Between Us." *Who Comes after the Subject*. Ed. Eduardo Cadava, et. al. New York: Routledge, 1991. 167-77.
- _____. *I Love to You*. Trans. Alison Martin. New York: Routledge, 1996.
- Joyce, James. *Ulysses*. New York: Vintage, 1986.
- _____. *Finnegans Wake*. New York: Penguin Books, 1976.

- Lacan, Jacques.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W. W. Norton, 1977.
- _____. *On Feminine Sexuality: Encore 1972-73*. Trans. Bruce Fink. New York: W. W. Norton, 1998.
- Lehan, Richard. "Joyce's City." *James Joyce: The Augmented Ninth*. Ed. Bernard Benstock. Syracuse: Syracuse UP, 1984. 247-61.
- Pearce, Richard. "Molly Blooms—A Polylogue on 'Penelope.'" *Molly Blooms*. Ed. Richard Pearce. Madison: The U of Wisconsin P, 1994. 3-16.

Abstract

The Politics of Gaze: A Lacanian Reading of “Nausicaa”

Gilyoung Oh

This essay attempts to examine “Nausicaa” in view of Joyce's thinking on the sexual difference and relationship, mainly drawing on Lacan's scandalous notion of the impossibility of sexuality relationship and his theory of gaze. Bloom tries continuously in *Ulysses* to verify his male identity with the gazes of others, especially women, typically illustrated in his voyeuristic enjoyment of Gerty's exposure in “Nausicaa”. The question of sexual identity is posed and confirmed in his relationship with Gerty. As Joyce brilliantly demonstrates in “Nausicaa,” echoing the Lacanian argument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sexual relationship, sexual relationship is always already asymmetrical.

Each sex's symbolical relationship to the Other(the Symbolic)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her silent exchanges of glance with Bloom, Gerty falls into a daydream that she finally encounters her ideal real man who embraces and protects her. Against the ideal image of real man projected onto Bloom, Gerty similarly projects a ladylike image onto herself. Gerty's silent desire expressed in her glance falls, however, far short of capturing Bloom's unrepresentable voyeuristic desire of enjoying her. Gerty serves the enjoyable feast for Bloom's eyes. The mis-matched exchanges of glances and desires between Gerty and Bloom may be discussed more clearly in conjunction with the Lacanian notion of gaze. Gaze is a reciprocal product of Self and Other in the Lacanian terms. The process of gaze is, as well expressed in the Gerty-Bloom case, made possible by the logic of misjudgment or misrecognition from both partners. Gerty's fantasy of love is based on her misjudgment. Gaze is, however, asymmetrically reciprocal. The process of self-identification in the space of gaze goes hand in hand with the appropriation of

the projected image onto herself. Gerty thus finally realizes the gap between fantasy and reality at the end of the episode.

■ Key words : sexual difference, sexual relationship, sexual subject, glance, gaze, masculine, feminine, the Other, Lacan, Freud, Irigaray, Deleuze (성적 차이, 성적 관계, 성적 주체, 시선, 응시, 남성성, 여성성, 대타자, 라캉, 프로이트, 이리거라이, 들뢰즈)